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

- 회고와 전망 -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강 순 애 (Soon-Ae Kang)**

목 차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2.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
3. 자료의 분석
3.1 정량적 분석
3.2 내용 분석
4. 결론 및 제언

〈초 록〉

이 글은 지난 12년 간의 기록관리의 역사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그간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과 기록관리 관련분야 6종의 학술지에 실린 31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31편의 논문목록을 작성하고, 분야별·연도별 논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별 현황에서는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을 밝혔다. 내용분석에서는 먼저 기록관리의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향후 기록관리의 역사 분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이론과 실무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리 일반사,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동향

<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published during the past 12 years, analyzing issues, and suggesting future tasks in related research areas. It starts with categorizing research area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in archival sciences. All 31 articles have been selected from the 2 journals on archival science and 6 journals on related research areas. In quantitative measurement, the paper draws up 31 kinds of article bibliographies and looks at the current status of subject areas by year and author. In content analysis, selected articles are categorized into 3 subject areas, that is, general history, domestic history, and foreign history. For each subject area, research trends of the historical and regional studies are analyzed. This study concludes with emphasis on a new research direction between practice and points out that academic theory should be requir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Keyword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general history, domestic history, foreign history, research trends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 접수일: 2013년 11월 11일 ■ 최초심사일: 201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41-65, 2013.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041〉

www.kci.go.kr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기록관리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해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학의 연구 영역을 확장해야 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세부영역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록관리학은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컴퓨터학 등과 깊이 관련된 학제성을 띤 학문이어서 각 분야와 공통의 영역을 구축하여야 하고 공동의 주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10년 출범한 지 11년이 되던 해에 산하 편집위원회를 통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영역을 선정하여 정량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그 연구 성과와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이후의 학술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4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첫째, 최재희(2011)의 논문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동향 -회고와 전망-이다. 전체 33편의 논문을 평가하여 논문의 감소와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직의 참여가 줄어들었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안 제시나 평가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같은 논의가 감소하고, 향후 이론과 실무의 조응을 통해 평가 영역의 활성화와 다양한 기반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이소연(2011)의 논문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인데, 전자기록을 다룬 논문 57편을 선정하여 8가지 세부 주제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설문원의 논문(2011)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과제"인데, 기록분류와 관련된 35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분야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해외 연구 동향, 국내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이소연(2013)은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은 디지털 아카이브나 보존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는 연구논문 115건을 선정하여 일반 연구, 정책 연구, 기술 연구와 디지털 자원 유형별 연구의 4가지 주제영역별로 범주화하여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필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록관리 분야중 핵심영역의 근간을 이루는 기록관리 역사의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를 개관하고, 기록관리 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 및 기록관리 관련 분야 6종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선정한 후 정량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고무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기록관리 역사의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과 기록관리 관련분야의 「기록관리보존」, 「한국고대사연구」, 경북대의 「사회과학」, 「한국사연구」, 「역사교육」, 「한국문화」의 6종의 학술지에 실린 31편의 논문을 국내 학술검색서비스인 DBPIA를 검색하여 추출하였다.

www.kci.go.kr

본 연구의 방법은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 정량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는 기록관리학의 정의, 교육분야와 커리큘럼, 그리고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의 흐름에 대해 밝히고,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이나 인용분석을 통해 연구영역의 주제나 흐름을 파악한 다음 기록관리의 역사의 연구범주를 설정하였다.

2) 정량적 분석

31종의 논문목록을 작성하고, 분야별・연도별 논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별 현황에서는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을 밝혔다.

3) 내용 분석

내용분석에서는 기록관리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시기별, 지역별 역사를 다룬 논문을 중심으로 하고 기록 자체를 다룬 기록의 역사는 제외하였다.

2.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리학은 기록의 생산, 이용, 보관, 처분 등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 전 과정과 관련한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SAA의 「기록관리용어사전」에 의하면 기록관리학(archival science)이란 "기록된 자료에 대한 평가, 입수, 인증, 보존, 접근제공 등의 실무를 뒷받침해주는 체계적 이론체"이다(Pearce-Moses 2005).

국내의 「기록관리학사전」에서 기록관리학(records management)은 "현용기록(current records), 준현용기록(semi-current records), 보존기록물(archives), 보존문서(manuscript repository) 등 전반적인 기록 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록물의 평가 및 제적, 수집, 분류 및 배열, 목록 기술, 참고봉사, 전시 홍보, 보존, 그리고 기타 이용자 봉사 등에 대한 이론 및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최정태 등 2005).

우리나라에서도 기록관리학이 공식적인 학문으로 인정받고 교육과정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99년 12월 7일에 법률 제5709호로 신규 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2006년 10월 4일에 법률 제8025호로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록관리 분야의 정책 및 제도가 조직화되었다.

교육 분야는 1999년 3월에 목포대에서 일반대학원의 협동과정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일반대학원의 협동과정이나 학과 내 전공, 또는 특수 또는 전문대학원 소속으로 교

www.kci.go.kr

육이 이루어졌다. 2013년 현재,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22개(이화여대는 일반대학원 학과 간 전공 박사과정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2개 과정)의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었으나 2005년 10월 19일 공주대의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이 폐지되어 현재 21개 대학원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은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가 학문의 영역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각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살펴보면, 기본지식범주에 속하는 과목으로는 19개 대학이 기록관리학(입문, 개론)을 입문과정으로 설정하였다. 핵심과목은 기록수집 및 평가, 기록조직(정리, 기술), 전자기록관리,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보존, 기록관경영,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관리법령, 기록물검색, 기록관리의 역사가 개설되어 정보기술, 전자기록,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었다. 보충지식범주에는 행정학과 관련된 행정조직, 정보정책론, 행정관리론, 컴퓨터공학 관련의 데이터베이스 등이 개설되어 기록관리 학문의 학제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는 특히 교과과정을 기본과목, 핵심과목, 보충과목, 실무과목, 연구과목으로 나누고, 보충과목에는 전자정부론, 한국현대사, 기록관리와 지식경영,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론, 구술사연구, 고문서연구, 헌법행정법의 8개 과목이나 개설하고 있다. 실무지식과 연구지식에 있어서는 기록관리실습을 17개 대학이 중요시 하였고, 연구방법, 논문연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이들 과목중 기록관리의 역사는 핵심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또한 1999년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출범하여 2001년부터는 기관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발간하였고, 2000년에는 한국기록학회가 결성되어 「기록학연구」를 발간하였다. 지난 10여년간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논문들을 분석하면 기록관리의 역사분야의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중에서도 어떤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이나 인용분석을 통해 연구영역의 주제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 김희정(2006)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에 대하여 수행된 총 12건의 연구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1980년대는 기록물과 기록관 중심의 연구, 1990년대에는 전자기록물과 정보시스템 중심의 연구, 2000년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파생되는 여러 전문적 정보기술 주제와 인접 학문과의 결합성이 강조되는 학제적 연구가 중심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2007)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문헌정보학 영역의 대표적인 저널 5종을 선정하여 기록관리학 논문 145건을 분석하였는데, 핵심주제 영역은 전자기록관리・디지털보존, 기록관리정책・제도, 기록물 기술/목록, 기록관리학 영역/교육이었고, 문헌단위 지적구조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아카이빙 주제 영역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시기별 분석에

www.kci.go.kr

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이 새롭게 대두됨을 밝히고 있다. 장로사, 김유승(2009)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록관리학 관련 5개 학회지에 발표된 정보학 영역의 연구 성과 99건을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이 분야는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등이 핵심 정보학 영역이었다. 남태우, 이진영(2009)은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의 논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였다. 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1997-2001년에 연구가 증가하였다.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전문 학술지 3종에 발표된 344종을 선정하여 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주제는 기록물, 기록물관리, 정책/제도, 시스템, 체계/체재, 기관, 분류/목록/기술, 표준/표준화, 정보서비스, 아카이브즈/아카이빙, 장치/장비/용품, 기준/규정/규칙, 인력이었다. 김규환, 남영준(2009)은 1999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기록관리보존」에 게재된 374편의 핵심 논문들을 추출하였다. 핵심주제는 기록물/기록매체, 아카이브즈/기록관리, 법/정책/제도, 기관, 시스템/장비/기술, 표준/기준의 6개 주제영역이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경(2011)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1년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 17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인용행태를 분석하여 학제성을 밝힌 결과 문헌정보학과의 학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김희정(2006),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2007), 장로사, 김유승(2009), 남태우, 이진영(2009),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 김규환, 남영준(2009), 정연경(2011)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에서 기록관리의 역사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록관리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의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역사 연구는 총체사와 세부 주제별 역사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체사는 세계사, 지역사, 국별사, 시대사, 문화사, 기록관리 역사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 주제별 역사는 기록관의 설치, 기록관의 관리와 봉사, 기록관의 행정/법규/재정, 분류/정리, 기록의 생산/이용/보관/처분, 전문직의 양성과 그 기관의 역사, 기록관리학의 성립과 발전, 기록관 운동과 단체에 관한 역사, 관종별 기록관, 기록관리학의 비교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www.kci.go.kr

3. 자료의 분석

3.1 정량적 분석

3.1.1 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논문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비롯한 관련 학회지에서 기록관리의 역사를 다룬 연구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 검색 대상은 국내 학술검색서비스인 DBPIA를 검색하여 31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은 〈표 1〉과 같고, 대상이 된 학술지는 기록관리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10회)와 「기록학연구」(15회) 2종과 기록관리 관련분야의 「기록관리보존」(1회), 「한국고대사연구」(1회), 경북대의 「사회과학」(1회), 「한국사연구」(1회), 「역사교육」(1회), 「한국문화」(1회)의 6종으로 모두 8종이다.

기록관리의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 논문 목록

no	분야		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
1	일반사	일반사	박찬승(2007)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기록관리보존, 11
2		일반사	서혜란(2009)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3		일반사	이영학(2012)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기록학연구, 19
4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	삼국시대 -백제-	윤선태(2007)	백제의 문서행정과 목간	한국고대사연구, 48
5		고려시대	남권희, 옥영정(2001)	高麗時代 記錄物의 交流와 保管制度	경북대社會科學, 13
6		고려시대	강은경(2003)	고려시대 공문서의 전달체계와 지방행정운영	한국사연구, 122
7		고려시대	강은경(2004)	고려시기 공문서 관리체계에서 胥吏의 地位	역사교육, 89
8		조선시대	이경용(2004a)	한말 기록관리제도 -공문서관리규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9		조선시대	오항녕(2008)	조선전기의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
10		조선시대	이영학(2009)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기록학연구, 19
11		일제강점기	이경용(2004b)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기록학연구, 10
12		일제강점기	이승일(2007a)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	기록학연구, 15
13		일제강점기	이상찬(2013)	조선총독부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사적 성격	한국문화, 61
14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경용(2003)	한국 기록관리체재 성립과정과 구조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전현수(2007)	한국 현대기록관리 제도의 정립(1969-1999)	기록학연구, 15
16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승일(2007b)	1960년대 초반 한국기록관리체재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17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승일, 이상훈(2008)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 (1968-197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18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승일(2008a)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9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이상훈(2009)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재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재의 개편	기록학연구, 21
20		공공기록관리법 제정이후	정용욱(2004)	역사학 연구와 기록 -1990년대 후반이래 기록관리제도의 발달, 자료의 정보화와 한국현대사 연구-	기록학연구, 9
21		공공기록관리법 제정이후	이승일(2008b)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 (1999-2008)	기록학연구, 18

www.kci.go.kr

no	분야		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
22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	아시아	강대신, 박지영(2004)	중국·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23		아시아	문주영, 김나영(2004)	아시아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관한 연구 -인도·싱가폴·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24		아시아	남경호(2011)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체재 검토	기록학연구, 30
25		북미	노경란, 박희영(2004)	북미지역 의 기록관리체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26		북미	이경래(2010)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재에 대한 역사적 이해	기록학연구, 10
27		유럽	송기호, 소매실(2004)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28		러시아	조호연(2004a)	소련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	기록학연구, 10
29		러시아	조호연(2004b)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 제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30		러시아	조호연(2005)	러시아 연해변강주(沿海邊疆州)에서의 기록관리업무의 성립과 발전	기록학연구, 12
31		러시아	주은성(2007)	소비에트 초기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표 2〉 분야별·연도별 논문 현황

분야 / 연도	일반	국내						국외				계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 관리법제정 이후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	
2001			남권희·옥영정									1
2002												·
2003			강은경			이경용	정용욱					3
2004			강은경	이경용a	이경용b			강대신·박지영, 문주영·김나영	노경란·박희영	송기호·소매실	조호연a 조호연b	9
2005											조호연	1
2006												·
2007	박찬승	윤선태			이승일a	전현수 이승일b					주은성	6
2008				오항녕		이승일, 이상훈 이승일a	이승일b					4
2009	서혜란			이영학		이상훈						3
2010									이경래			1
2011								남경호				1
2012	이영학											1
2013					이상찬							1
계	3	1	3	3	3	6	2	3	2	1	4	31

3.1.2 분야별·연도별 논문현황

기록관리의 역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 31편을 분야별·연도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www.kci.go.kr

분야별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시기의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고, 국외-러시아-가 4편, 일반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국외-아시아-가 각 3편,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와 국외-북미-가 각 2편, 삼국시대-백제-와 국외-유럽-이 각 1편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에 9편으로 가장 연구가 많았고, 2007년 6편, 2008년 4편, 2003년과 2009년에는 각 3편, 2001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1편이다.

3.1.3 연구자별 현황

기록관리의 역사분야 31편의 글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36명이고,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25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당 저자수

저자는 단일저자와 공동저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저자가 1명인 경우는 25편으로 전체의 80.64%이고, 공저는 6편으로 19.35%로 20%가 채 되지 않는다. 기록관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합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논문편수별 연구자

논문편수별 연구자는 〈표 4〉와 같다. 이승일이 4편으로 논문편수가 가장 많았고, 이경용과 조호연이 3편이며, 강은경과 이상훈이 2편이다. 20명이 1편인데, 그중 10명이 단일저자이고, 10명은 공동저자이다.

3)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유형을 정리하면 〈표 5〉

〈표 3〉 연구당 저자수

연도 / 저자수	2001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명		3	5	1	6	3	3	1	1	1	1	25(80.65)
2명	1		4			1						6(19.35)
계	1	3	9	1	6	4	3	1	1	1	1	31(100)

〈표 4〉 논문편수별 연구자 및 소속기관

편수	연구자명	계(명)
4편	이승일	1
3편	이경용, 조호연	2
2편	강은경, 이상훈	2
1편	박찬승, 서혜란, 윤선태, 오항녕, 이상찬, 전현수, 정용욱, 남경호, 이경래, 주은성, 남권희・옥영정, 강대신・박지영, 문주영・김나영, 노경란・박희영, 송기호・소매실	20
총계		25

www.kci.go.kr

〈표 5〉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

연구자	소속기관 및 직급	소속기관의 유형					
		대학교	기록관	연구소	도서관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승일	국회기록보존소 / 기록연구사		○				
이경용	국가기록원 / 학예연구사		○				
조호연	경남대 인문학부 / 교수	○					
강은경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연구원			○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 교수	○					
서혜란	신라대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교수	○					
윤선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 교수	○					
오항녕	충북대 우암연구소 / 전임연구원			○			
이상찬	서울대 인문대 국사학과 / 교수	○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 교수	○					
이상훈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석사					○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 교수	○					
남경호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박사과정						○
이경래	중앙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 박사수료						○
주은성	러시아 국립인문대학 기록학과 / 박사과정						○
남권희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교수	○					
옥영정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				○		
강대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정보실 / 선임기술원			○			
박지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석사과정					○	
문주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박사과정						○
김나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석사과정					○	
노경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해외정보실 / 선임연구원			○			
박희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	
송기호	서울 영신고등학교 / 사서교사				○		
소매실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박사과정						○
계	25	8	2	4	2	4	5

와 같다. 〈표 5〉는 〈표 4〉에 제시된 연구자의 순서대로 정렬 한 것이다. 연구자들의 소속기관 및 유형을 보면, 대학교에 소속된 전문그룹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교수직에 있고 전공은 역사학이 6명, 문헌정보학이 2명이었다.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대학원 박사과정이 5명이고 석사과정이 4명이었다. 박사과정은 문헌정보학 전공이 2명, 기록관리학 전공이 2명, 역사학 전공이 1명이었다. 석사과정은 문헌정보학 전공이 3명, 기록관리학 전공이 1명이었다.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은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자가 주도하고 있었다. 다른 유형으로는 연구소가 4명, 기록관과 도서관 소속이 각 2명이었다.

www.kci.go.kr

3.2 내용 분석

각 연구 논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관리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순서에 의해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한다.

3.2.1 기록관리의 일반사

기록관리의 일반사에 관한 논문은 3편이다. 우선, 박찬승(2007)은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거대한 명제들 들고 나왔지만, 실제는 매우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록과 기록관리란 무엇인가?, 한국기록보존의 전통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근대 이후 한국 기록보존의 실태, 외국의 기록보존의 실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역사가 없으면 존재도 없다, 기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둘째, 서혜란(2009)은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0년 동안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각종 제도를 분석하였다. 공공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도입기(1948년~1980년대 중반), 준비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발전기(2000년~2007년), 전환기(2008년 이후)로 나누었다. 도입기부터 발전기까지는 주로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기록관리 관련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고, 전환기는 현재의 기록관리 관련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전환기는 새로운 성장기로 유도하기 위해 쌍방향적 네트워크형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이영학(2012)의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은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어떻게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었는지의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 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삼국과 고려가 빠져 있긴 하지만, 조선부터 현대까지의 기록관리의 역사적 흐름을 개관하였다.

3.2.2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는 시대별로 나누어 삼국시대 -백제- 1편, 고려시대 3편, 조선시대 3편, 일제강점기 3편,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6편,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2편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삼국시대-백제

한국 고대사회의 문서 생산과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이 없다. 그 이유는 문헌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고고학적 발굴 자료가 드물어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윤선태(2007)는 '백제의 문서행정과 목간'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백제의 문서목간과 문서표지용 꼬리표목간을 분석하여, 백제의 문서 생산, 보관, 폐기방식 등

www.kci.go.kr

을 검토하였다. 우선 '능산리 사면목간'을 통해, 당시 백제에서 최종 장부를 정리하기에 앞서 사면목간을 중간 정리용 메모장으로 사용하였고, 메모의 기능이 다한 뒤, 기존의 묵서를 깎아내고 또 다른 내용의 메모장으로 여러 차례 재활용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어 '관북리 285호 목간'을 활용하여 문서의 정리와 보관 방법, 문서의 보존과 폐기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문서의 정리와 보관 방법은 중국 한대(漢代)의 표지용 목간인 갈(檮)과 형태가 유사하고, '병여기(兵与記; 두루마리(卷子本) 형태의 권축문서)'라는 장부명칭이 묵서되어 있다는 점에서, '兵与記'라는 장부의 표지로 기능한 꼬리표였다고 추정하였다. 문서의 보존과 폐기방식의 경우는 목간의 상단부를 조금씩 차례차례 조각내 부러뜨리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고대일본의 목간 폐기행정(廢棄行程)과 동일한 목간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는 백제멸망 후 백제 관인층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으로 백제의 문서생산과 폐기방식 등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결국 백제에는 문서의 오용을 막기 위해 문서목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관례가 관인사회 내에 존재하였고, 이것이 양국 사이에 동일한 정형화된 폐기행정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기록관리를 다룬 논문은 3편이다. 남권희, 옥영정(2001)의 "高麗時代 記錄物의 交流와 保管制度"는 고려시대 기록물의 교류와 그 보관제도를 역사적 기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제목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다룬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송나라와 고려의 서적교류를 먼저 다루고, 고려의 기록보관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제도와 국자감, 고려실록의 기록관리, 대장경의 보관을 다루었으며, 끝에는 기록관리 담당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려시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고려의 서적보관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기록관리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자는 강은경이다. 강은경(2003)은 "고려시대 공문서의 전달체계와 지방행정운영"에서 공문서를 통한 지방과 중앙의 의사소통, 공문서 전달체계의 일원화와 지방행정운영, 지방행정 운영에서 지방관과 별함(別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려전기에 중앙과 지방의 제도를 반영한 공문서 규정인 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과 공문서 교류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외관조(外官條)를 상세하게 살폈으며, 이러한 일정한 서식의 공문을 통해 지방행정이 중앙의 전체적인 조율 속에 체계화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강은경(2004)은 "고려시기 공문서 관리체계에서 胥吏의 地位"의 글을 통해 공문서를 관리를 담당하는 서리(胥吏)가 고려의 정치체계에서 어떤 지위와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중앙의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서리이며 이들의 명칭은 주사(主事)·녹사(錄事)·영사(令史)·서사(書史)·서령사(書令史)·사(史)·기사(記事)와 기관(記官) 등이 있었고,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향리(鄕吏)들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을 기관(記官)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문서행정 실무자일 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

www.kci.go.kr

임자의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기록관리를 다룬 논문은 3편이다. 우선 이경용은 구한말의 기록관리 역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공헌하였다. 이경용(2004a)의 "한말 기록관리제도 -공문서관리규정을 중심으로-"에서 전반부는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 이전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기록관리기구의 형성과 변화를 3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1기 갑오개혁기(1894년 7월 27일 군기무처 설치-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까지), 제2기 1895년 3월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여 4월 1일 내각제가 도입된 시기, 제3기는 통감부 설치 전후시기로 나누어 갑오개혁이후 기록관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6〉 참조). 논문의 후반부는 기록법령의 정비와 특징을 다루었다. 갑오개혁기는 의정부와 각 아문에 기록관리부서들이 설치됨에 따라 행정사무관리 전반에 관한 「각부각아문통행규칙(各部各衙門通行規則)」과 「각부처무규정통칙(各部處務規程通則)」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부, 탁지부, 궁내청, 경무청 등은 독자적으로 '처무규정' 또는 '문서취급규칙'을 마련하여 문서의 생산・유통・보존에 관한 통일적 규칙이 마련되었다. 궁내부도 「문서조판규정(文書措辦規程)」이라는 원칙 이외에도 '시행세칙'과 '편찬보존규정' 및 '편찬분류표' 등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졌다. 이러한 통칙과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갑오개혁 이후는 원본보존방식이 중시되었고, 1895년 통칙의 단계와 1904년 이후는 각 관청의 사례를 통해 보면 '보존기한제'와 '유별편찬제'가 특징이며, 궁내부에서는 문서편찬 보존부분이 강조되었음을 밝혔다.

오항녕(2008)은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를 통해 과거의 기억, 당대 기록의 작성,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거한 행정문서 관리 방식과 역사물의 기록관리 체계인 사관제도를 통하여 창출된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윤곽과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영학(2009)은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에서 대한제국의 설립과 관제의 개편, 기록관리기구의 설립과 업무 분장, 기록관리제도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고종에 의해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근대 기록관리가 시작되었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 및 황제권을 보좌하는 특별기구에 문서과와 기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

〈표 6〉 갑오개혁이후 기록관리의 변화

<table>
<tr><td rowspan="2">의정부
기록국</td><td>각아문
총무국</td><td rowspan="2">⇒</td><td>내각기록국</td><td>각부
대신관방</td><td rowspan="2">⇒</td><td>의정관방</td><td>총무국</td><td>각부
대신관방</td></tr>
<tr><td rowspan="2">문서과, 왕복과,
보고과, 기록과</td><td>편록과, 관보과, 사적과</td><td rowspan="2">문서과,
비서과</td><td>문서과</td><td rowspan="2">기록과</td><td rowspan="2">문서과,
비서과</td></tr>
<tr><td>참서관실 문서과</td><td>내각관방 비서과</td><td>비서과</td></tr>
</table>

* 출처: 이경용 2002

www.kci.go.kr

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대적 형태로 발현되었음을 고찰하였다.

4)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경용(2004b)의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규정, 보존문서의 분류와 편찬을 다루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는 일본 본국의 기록관리체제를 본떠서 산하의 문서과가 '문서행정의 통일'을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각 해당기관의 문서주무과에서 '분산보존관리'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본부의 영구보존문서는 총독관방 문서과에서, 산하기관의 영구보존문서는 각 기관의 서무과에서 편찬・보존하는 체제였다. 도(道)・부(府)・군(郡)・읍면(邑面)의 지방 행정단위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처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문서과(또는 문서계)와 서무계에서 영구보존문서를 편찬・보존하였다. 조선총독부 기록관리규정은 「조선총독부처무규정(朝鮮總督府處務規程)」인데, 문서의 취급과 문서의 보존・편찬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문서의 취급에서는 접수 및 배부, 성안 및 결재, 성안의 시행에 관해, 문서의 보존・편찬에서는 유별편찬 및 보존종별에 의한 분류, 성책(成册), 문서과로의 '인계', 서고보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보존문서의 분류와 편찬은 총독부 본부는 초기에 갑・을・병・정・무종의 5단계 구분방식을 채용했다가 1922년 처무규정에서는 4단계의 갑(영구)・을(10년)・병(5년)・정종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부군(府郡)의 경우, 충북・전남・경성부이외에는 갑・을・병종의 3단계 구분의 보존기한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읍면 단위에서는,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등 지방 단위로 내려올수록 그 형식에서 다양한 보존연한 방식이 채택되었다. 분류방식은 보존기한을 적용한 유별편찬이었고, 거기에 연도별과 과별 분류방식이 추가되고 있을 뿐이다. 이승일(2007a)의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는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의 차원에서 어떤 기구들이 어떤 기록을 수집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취조국이 1910년-1912년에 구 한국정부의 공기록을 이관하고 규장각의 도서를 정리하였고, 참사관실이 1912년-1915년에 규장각의 기록을 정리하고 민간사료를 수집하였으며, 중추원이 1915년-1938년에 역사의 편찬과 민간사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가 역사의 편찬과 민간사료를 수집하였다. 이글의 저자는 이러한 역사기록들이 한국사회를 기록화 한다는 관점이 아니었고,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으며, 당시의 식민지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찬(2013)의 "조선총독부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사적 성격"은 조선시대 기록 보관 관리 체계의 파괴, 사부분류체계의 일괄적용과 원질서의 해체, 명치정부의 역사기록 관리 정책과의 비교순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조선통독부의 도서정리사업은 식민통치 정책 수립을 위한 문헌조사에 목적을 두고, 조선 고종과 역대 국왕자료들, 정부 관청과 지방 사고의 소장기록, 조선정부의 행정문서철과 황실재정관련 자료를 모두 조선총독부 자료로 일원화하여 도서과의 문서 모두를 고도서에 적용되는 사부분류에 의해 정리

www.kci.go.kr

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기록관리체계가 무너지고, 문서가 본래 정리되었던 출처별 원질서를 모두 파괴해 버렸다고 지적하였다.

5)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대한정부수립 이후의 시기를 연구한 논문은 5편이다. 이경용(2003)의 "한국 기록관리체재 성립과정과 구조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설치와 '영구보존문서정리',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직체계 변천과 인력구조,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발전계획' 검토의 순으로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1990년 전반기까지의 기록관리체재를 고찰하였다. 전현수(2007)의 "한국 현대기록관리 제도의 정립(1969-1999)"은 기록관리기관의 창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 기록관리법 제정의 순서로 현대 한국 기록관리제도의 정비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승일의 2편과 이승일・이상훈의 공동연구 1편은 이경용(2003)과 전현수(2007)의 논문의 주제를 더 구체화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이승일(2007b)의 "1960년대 초반 한국기록관리체재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은 1961년의 군부세력의 집권과 사무관리제도의 변화가 변화되어 공공행정관리의 효율화가 강조되고, 1962년 보존문서정리작업으로 공문서의 효과적인 감축과 관리방법의 개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음을 밝혔다. 이승일・이상훈(2008)의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1968-1979)"은 국가비상시 신속한 정부 이동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보존문서정리작업은 1964년에 수립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부정하고 정부소산에 편리하도록 기록물 감축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구보존문서의 생성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1979년에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승일(2008a)의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은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훈(2009)의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재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재의 개편"은 석사학위 논문을 축약한 것으로 정부수립 초의 행정환경과 기록관리체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과학적 관리제도 도입과 그 영향으로 인한 한국정부의 행정체재 개선, 군사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6)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기를 다룬 논문은 2편이다. 정용욱(2004)의 "역사학 연구와 기록 -1990년대 후반이래 기록관리제도의 발달, 자료의 정보화와 한국현대사 연구-"는 한국기록학회가 한국 근・현대사와 기록이라는 특집의 두 번째 논문인 역사학연구와 기록인데 부제가 1990년 후반 기록관리제도가 정착되고, 그에 따른 한국현대사 자료수집, 관리 활용현황에 대

www.kci.go.kr

한 개설적 내용을 다루었다. 이승일(2008b)의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은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보존소의 설치,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의 운영, 국회기록물의 관리현황, 국회 주요 기록물의 보존실태와 헌정자료의 수집 및 관리현황 등을 다루었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3.2.3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는 아시아 3편, 북미 2편, 유럽 1편, 러시아 4편인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3편이다. 강대신, 박지영(2004)의 "중국·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는 중국 및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한·중·일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중국의 기록관리는 「국가당안법」에 의해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문주영, 김나영(2004)의 "아시아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관한 연구 -인도·싱가폴·베트남을 중심으로-"는 열대지역에 속해 있고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며 오랜 문화유산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인도·싱가폴·베트남의 기록관리법, 기록관리 체계,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제도, 기록관리 업무체계, 기록관리 특징을 자세하게 비교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 논문이다. 남경호(2011)의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체재 검토"는 일본의 기록관리 체제 및 공문서관리법 제정 과정,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법체계 분석, 공문서관리법 체계의 기록관리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힌 글이다.

2) 북미

북미지역의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2편이다. 노경란, 박희영(2004)의 "북미지역의 기록관리체재에 관한 비교 연구"는 미국 및 캐나다의 기록관리제도 및 체계인 기록관리 기본원칙, 국립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위를 살펴보고, 미국과 캐나다 기록관리체제의 특징을 종합한 것이다. 이경래(2010)의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재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한 것이

www.kci.go.kr

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1차 세계대전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1차 세계대전~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2차 세계대전~냉전시기)로 나누어 비밀기록관리체재의 수립, 구축, 현재적 구상의 역사를 밝혔다.

3) 유럽

유럽 지역의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송기호, 소매실(2004)의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이다. 이 논문은 영국・프랑스・독일 각국의 기록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록관리와 보존을 위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전문가 양성제도, 기록관리업무체계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고해야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유럽 3국이 우리의 기록관리제도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공공기록물에 대한 연구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고 일반인의 열람권을 보장한 것, 지방기록보존소를 지역문화와 역사연구의 중심지로 활성화한 것,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직렬을 구분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성한 것, 넷째, 역사적 개인 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보존을 지원한 것 등이라고 하였다.

4) 러시아

러시아의 기록관리의 역사를 다룬 논문은 4편이다. 조호연(2004a)의 “소련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성립된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성립과정과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제정 러시아 시기와 2월 혁명 직후의 기록관리, 10월 혁명과 기록 관련 법령의 제정, 기록관리제도의 정비, 권력의 강화에 따른 기록관리제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조호연(2004b)의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를 보면, 소련은 1929년 4월에 “러시아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켰으며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을 밝혔다. 조호연(2005)의 “러시아 연해변강주(沿海邊疆州)에서의 기록관리업무의 성립과 발전”은 제정 러시아 및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1860~1938)는 연해변강주 지역의 러시아로의 편입되고 시베리아내전 종결이전 이후의 기록관리를 다루었고, 2차 세계대전 직전 및 전쟁기의 기록관리(1938~1945)는 기록관리기관의 소속이 변경되고, 연해변강주 기록물의 소개(疏開) 작업과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의 설치에 대해 밝혔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록관리는 연해변강주 기록관에서의 기록관리와 중앙국립극동기록관의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이전과 발전을 다루었다. 주은성(2007)의 “소비에트 초기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 연구”는 소비에트기록관리제도의 맹아를 제정러시아 말기 아키비스트였던 칼라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기록관리제도 혁신에서 찾는 시각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정

www.kci.go.kr

및 칼라초프의 개혁안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칼라초프의 개혁안과 소비에트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기록관리의 역사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록관리 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및 관련 분야의 6종의 게재지에 실린 31종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31종의 논문목록을 작성하고, 분야별・연도별 논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별 현황에서는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을 밝혔다.

첫째, 분야별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시기의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고, 국외-러시아-가 4편, 일반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국외-아시아-가 각 3편,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와 국외-북미-가 각 2편, 삼국시대-백제-와 국외-유럽-이 각 1편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에 9편으로 가장 연구가 많았고, 2007년 6편, 2008년 4편, 2003년과 2009년에는 각 3편, 2001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1편이다.

둘째, 기록관리의 역사분야 31편의 글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36명이고,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25명이다. 저자가 1명인 경우는 25편으로 전체의 80.64%이고, 공저는 6편으로 19.35%로 20%가 채 되지 않는다. 기록관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합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편수별 연구자는 이승일이 4편으로 논문편수가 가장 많았고, 이경용과 조호연이 3편이며, 강은경과 이상훈이 2편이다. 20명이 1편인데, 그중 10명이 단일저자이고, 10명은 공동저자이다. 연구자들의 소속기관 및 유형을 보면, 대학교에 소속된 전문그룹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교수직에 있고 전공은 역사학이 6명, 문헌정보학이 2명이었다.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대학원 박사과정이 5명이고 석사과정이 4명이었다. 박사과정은 문헌정보학 전공이 2명, 기록관리학 전공이 2명, 역사학 전공이 1명이었다. 석사과정은 문헌정보학 전공이 3명, 기록관리학 전공이 1명이었다.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은 기록관리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자가 주도하고 있었다. 다른 유형으로는 연구소가 4명, 기록관과 도서관 소속이 각 2명이었다.

2) 내용분석에서는 기록관리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록관리의 일반사 연구는 3편 밖에 없고, 각 연구가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시대사의 일부에 제한되었다. 총체적 시각에서 다루어진

www.kci.go.kr

연구는 없었다.

둘째, 국내 기록관리 역사는 시기별로 나누어 삼국시대 -백제- 1편, 고려시대 3편, 조선시대 3편, 일제강점기 3편,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6편,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2편이 발표되었다.

삼국시대는 백제시대의 문서의 정리와 보관방법, 문서의 보존과 폐기방식에 대해 검토한 논문뿐이었고, 고구려와 신라시대 기록 관리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려시대를 다룬 3편의 논문은 서적보관제도, 공문서규정인 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과 공문서 교류, 그리고 중앙의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서리(胥吏)와 지방 행정기관의 문서관리자인 기관(記官)에 대해 밝혔다. 고려 기록관리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밝히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논문은 3편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거한 행정문서 관리 방식과 사관제도, 공문서관리규정을 중심으로 한 구한말의 기록관리제도, 대한제국시기의 근대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조선조의 왕조별 기록관리, 역사기록물 관리, 1차·2차 기록물 관리, 기록관리담당자 등의 세부적인 연구가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논문은 3편은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전반,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의 차원의 기록 수집, 조선시대 기록 보관 관리 체계의 파괴 및 조선총독부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사적 성격을 밝혔다. 일본이 조선의 강제 식민지화를 위한 극히 비상식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 및 피해를 입은 주변 국가와의 비교 연구는 없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5편의 논문은 1969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 기록관리제도의 정비과정, 1960년대 초반 한국기록관리체재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1968-1979),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등이 다루어졌다. 정부수립이후 일제시대기록관리가 근대 기록관리에 미친 영향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2편의 논문은 1990년 후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그에 따른 한국현대사 자료수집, 관리 활용현황에 대한 개설적 내용을 다루거나,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연구가 있었다. 한국 현대 기록관리의 체계를 다루는 연구로는 매우 미약하여 이 시기의 기록관리의 역사를 정립해나가기 위한 이론들이 필요하다.

셋째,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는 아시아 3편, 북미 2편, 유럽 1편, 러시아 4편인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국별로 잘 이루어진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선점을 찾아내고자 이루어졌다.

아시아 지역의 연구 3편은 중국·일본, 인도·싱가폴·베트남,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법령개정·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북미지역의 연구 2편은 미국 및 캐나다의 기록관리제도,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한 것이다. 유럽지역의 연구는 영국·프랑스·독일을 기록관

www.kci.go.kr

리제도를 분석하여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고해야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러시아의 기록관리의 역사를 다룬 논문은 4편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성립된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성립과정과 그 변화,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맹아를 제정러시아 말기 아키비스트였던 칼라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 형성과정에 대해 비교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관리의 역사 분야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기록관리 역사는 역사일반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없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각 시기별로 전문 연구자 그룹이 중심이 되어 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다각도로 조망해야 한다. 국내 기록관리 역사 연구가 시기별, 지역별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론적 기반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는 시대별로 역사연구가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는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발전에 비해 남아 있는 문서가 거의 없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물을 통해 기록관리의 연구가 체계화되어야 하고, 같은 시대의 중국,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증거가 될만한 기록들의 발굴 및 상호 연계된 연구가 필요하다. 고려시대는 문헌에서 언급되는 기록을 찾아나가고 그에 맞는 여러 발굴물과 연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고려시대 기록관리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어야 한다. 조선시대는 기록관리가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많은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기록관리, 기록관, 기록물에 대해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제강점기는 사례연구 및 식민지를 당했던 여러 나라의 기록관리 역사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는 우리나라 근대 기록관리 역사를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록관리제도에 미친 영향 및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는 현대 한국기록관리의 역사를 구축하여 개발하고 정착화시켜 나가는 시기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록관리 역사가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국외 기록관리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기록관리제도와 우리나라 기록관리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국가들의 기록관리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대신, 박지영. 2004. 중국・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4(2), 92-117.
강은경. 2003. 고려시대 공문서의 전달체계와 지방행정운영.「한국사연구」122, 31-62.
강은경. 2004. 고려시기 공문서 관리체계에서 胥吏의 地位.「역사교육」89, 99-126.

www.kci.go.kr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43(3), 417-439.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43(4), 217-239.

김희정. 2006.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6(2), 5-25.

남경호. 2011.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기록학연구」30, 205-247.

남권희, 옥영정. 2001. 高麗時代 記錄物의 交流와 保管制度. 경북대「社會科學」13, 91-132.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40(2), 451-472.

노경란, 박희영. 2004. 북미지역 기록관리체제에 관한 비교 연구.「기록관리학회지」4(2), 164-191.

문주영, 김나영. 2004. 아시아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연구 -인도 싱가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4(1), 149-176.

박찬승. 2007.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기록관리보존」11, 8-24.

서혜란. 2009.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한국기록관리학회지」9(2), 189-214.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한국기록관리학회지」12(3), 203-232.

송기호, 소매실. 2004.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연구 -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4(1), 117-147.

오항녕. 2008.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기록학연구」17, 3-37.

윤선태. 2007. 百濟의 文書行政과 木簡.「한국고대사연구」48, 303-334.

이경래. 2010.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기록학연구」23, 257-297.

이경용. 2002. 한말 기록관리제도 - 공문서관리 규정을 중심으로.「기록학연구」6, 161-224.

이경용. 2003. 한국 기록관리체제 성립과정과 구조 -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기록학연구」8, 3-56.

이경용. 2004.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기록학연구」10, 226-275.

이상찬. 2013. 朝鮮總督府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지적 성격.「한국문화」61, 361-391.

이상훈. 2009.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기록학연구」21, 169-246.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한국기록관리학회지」11(2), 7-31.

이소연. 2013.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한국기록관리학회지」13(2), 247-283.

이승일. 2007a.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기록학연구」15, 3-37.

이승일. 2007b.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한국기록관리학회지」7(2), 43-71.

이승일. 2008a.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한국기록관리학회지」8(2), 5-38.

이승일. 2008b.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기록학연구」18, 37-89.

www.kci.go.kr

이승일, 이상훈. 2008.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1968~1979).「한국기록관리학회지」8(1), 65-96.

이영학. 2009.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기록학연구」19, 153-192.

이영학. 2012.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기록학연구」34, 221-250.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41(1), 345-372.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비블리아학회지」20(1), 87-100.

전현수. 2007.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1969-1999).「기록학연구」15, 39-66.

정연경. 2011.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45(2), 367-391.

정용욱. 2004. 역사학 연구와 기록 - 1990년대 후반이래 기록관리제도의 발달, 자료의 정보화와 한국현대사 연구 -.「기록학연구」9, 210-233.

조호연. 2004a.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기록학연구」10, 324-369.

조호연. 2004b.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한국기록관리학회지」4(2), 23-39.

조호연. 2005. 러시아 연해변강주(沿海邊疆州)에서의 기록관리업무의 성립과 발전.「기록학연구」12, 237-272.

주은성. 2007. 소비에트 초기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7(2), 95-111.

최재희. 2011.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한국기록관리학회지」11(1), 7-22.

최정태 등. 2005.「기록관리학사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3판. 성남: 아세아문화사.

Pearce-Moses, Richard.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http://www.archivists.org/glossary/index.asp〉.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Ro-Sa, & Kim, You-Seung.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87-100.

Cho, Ho-yeon. 2004a. "The Organization of the Archival Systems and Their Transformations in the First Period of the Soviet Un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0, 324-369.

www.kci.go.kr

Cho, Ho-yeon. 2004b. "The Soviet Archival System from the Russian Revolution to the 1930'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4(2), 23-39.

Cho, Ho-yeon. 2005.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Archival System in the Primorskii Krai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2, 237-272.

Choi, Jae Hee. 2011.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7-22.

Choe, Jung-Tai, etc. 2005. *The Glossar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Seoul: Hanul Publishing Company.

Chung, Yeon-Kyoung. 2011."A Reference Study o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of 2001-20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367-391.

Jeon, Hyun-Soo. 2007. "Improvement of Contempor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Korea(1969-1999)."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5, 39-66.

Joo, Eun-Sung. 2007.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Early Soviet Archival System: With the Incarnation of the Kalachov's Archival Theo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95-111.

Jung, Yong Wook. 2004. "Historical Studies and Records: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Digitalization and Study of Modern Korean History Since the late 1990s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9, 210-233.

Kang, Dae-Shin, & Park, Zi-Young. 2004. "A Study on Record Management Systems of China and Jap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4(2), 92-117.

Kang, Eun-Kyong. 2003. "The Official Documents Delivery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Local Administration in Goryeo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122, 31-62.

Kang, Eun-Kyong. 2004. "The Role of Seori in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of Goryeo Dynasty."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89, 99-126.

Kim, Gyu-Hwan, &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Kim, Gyu-Hwan, Jang, Bo-Seong, & Yi, Hyun-Jung.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www.kci.go.kr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417-439.

Kim, Hee-Jung. 2006. "A Study on the Serial Analysis and Expansion of Research Area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5-25.

Lee, Jae-Yun, Kim, Hee-Jung, & Moon, Ju-Young. 2007.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al Science in Korea with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45-372.

Lee, Kyong-Rae. 2010.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U. S. Secret Record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 257-297.

Lee, Sang-chan. 2013. "The Colonial Character of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Condu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Korean Culture* 61, 361-391.

Lee, Sang-Hun. 2009. "The Reform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n Government from 1948 to 1964."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169-246.

Lee, Seung Il. 2007a. "Archives Acquisition Activities and Rule of the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5, 3-37.

Lee, Seung Il. 2007b.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of Korean Government in the Early 1960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43-71.

Lee, Seung Il. 2008a. "The Re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1980s to the 1990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5-38.

Lee, Seung Il. 2008b.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8, 37-89.

Lee, Seung Il, & Lee, Sang-Hun. 2008. "The Retained Documents Disposal Project and Reorganization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1968~1979): Focused on Reorganization the Government Document Classification Scheme and Criteria for Retention Perio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1), 65-96.

Lee, So-Yeon. 2011.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www.kci.go.kr

11(2), 7-31.

Lee, So-Yeon. 2013. “Trends Analysis of Digital Preservation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2), 247-283.

Lee, Young-Hak. 2009. “Record management in Great Han Empir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9, 153-192.

Lee, Young-Hak. 2012. “Historical Observ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4, 221-250.

Moon, Ju-Young, & Kim, Na-Reum. 2004. A Study of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organization in Asia - India, Singapore, Vietnam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4(1), 149-176.

Nam, Kwon-Hei, & Ok, Young-jung. 2001. “Exchange of records and the Archives system in Koryo Dynas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ocial Science* 13, 91-132.

Nam, Kyeong-ho. 2011.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under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n Japa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205-247.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Noh, Kyung-Ran, & Park, Hee-Young. 2004. “A Comparative Study on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North Americ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4(2), 164-191.

Oh Hang-Nyeong. 2008. “An Understanding of the Archival Management in Early Joseon Dynas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7, 3-37.

Park, Chan-seung. 2007. “No Records No Histor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rchives management* 11, 8-24.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2013. *Records & Archives Management-The Science of Evidence & Memory*. 3rd ed. Seongnam: The Asian Culture Press.

Seol, Moon-Won. 2012.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203-232.

Song, Ki-Ho, & So, Mae-Sil. 2004. “A Study of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organization in Europe - Britain, France, German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4(1), 117-147.

Suh, Hye-Ran. 2009.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www.kci.go.kr

in Korea From 1948 to Pres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2), 189-214.

Yi, Kyung-yong. 2002. "A Study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from 1894 to 1910."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 161-224.

Yi, Kyung-yong. 2003. "The Historical Contexts and Structure of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8, 3-56.

Yi, Kyung-yong. 2004.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0, 226-275.

Yoon Seon-tae. 2007. "The Administrative Affairs by Wooden Documents in Paekche Kingdom."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48, 303-334.

www.kci.go.kr

www.kci.go.kr